

제주일보

HOME > 정치/행정 > 제주도정

강정 해상풍력발전 조성 본격 기대

김정은 기자 승인 2020.08.17

강정마을회, 주민과 임시총회서 사업 추진 합의
내년 해상, 해역 타당성 용역...하반기 공사 계획



사진=연합뉴스.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조성 계획이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정마을회는 지난 13일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주민들과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강정마을회는 주민과 협의한 끝에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등을 진행해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마을회와 어촌계 간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상풍력발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업비 1207억원을 들여 22MW(5.5MW×4기)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내년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해수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마친 뒤 하반기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 지원으로 주민과 민군간 화합과 상생,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5787억원 등 총 예산 9625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39개 사업 가운데 현재 완료된 사업은 9개에 그치고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등 지지부진해 정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기자